

“민생 우선” 한 목소리...해법은 3黨3色

새누리 ‘경제활성화’

노동4법·서비스법 처리 추진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가 이번 주 20대 국회 개원 협상에 나서면서 ‘신(新) 3당 체제’ 리더십의 첫 시대에 오른 가운데 3인 모두 ‘민생 최우선’을 기치로 내걸었다. 여야 원내사령탑 모두 계속된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속에서 민생경기 회복이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점을 중요시한 까닭이다.

새누리 정 원내대표는 8일 “개원국회의 화두는 결국 민생과 경제”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역점적으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민생 관련 의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언론 인

더민주 ‘경제민주화’

주거·통신·교육비 절감 목표

더민주에서 “민생 문제와 관련해 협조할 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쟁점이 되는 법안은 여야가 심도있는 협상을 통해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국회” 기조를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 역시 이날 민생을 우선시한다는 기조는 1, 2당과 마찬가지로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3당 모두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같은 목표를 내걸었으나 입법 방향은 말 그대로 ‘3당3색’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해법으로 내걸고 있는

국민의당 ‘공정성장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 발의 예고

새누리당은 이날 말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개원국회 역점 과제로 꼽고 있다. 민생안정을 실현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동력을 지켜내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준비하려면 총선 패배 국면에서 주춤하고 있는 현 정부 개혁 기조의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더민주의 입법 지향점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 슬로건이었던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으로 ‘유능한 경제정부’로서의 면모를

부각, 내년 대선까지 경제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서민 주거부담 완화 ▲가계통신비 인하 ▲사교육비 절감의 3대 민생 의제를 기본 방향으로 삼으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또한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이른바 ‘공정성장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 상임위원 증원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벤처기업의 납세 의무 완화 등이 포함된 공정성장법은 안철수 상임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뒷받침, 내년 대권을 위한 포석 격의 입법안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전당대회 준비 본격화

11일 실무기구 구성...송영길·박영선 등 후보군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뒤를 이을 새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3일 당무회에서 8월 말~9월 초 전당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오는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준비위,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하는 등 전대에 필요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당대회준비위 구성 시점부터 전대 준비를 마칠 때까지 80일가량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둘러도 7월말이 돼야 실무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대에 앞서 지역 실사와 지역 대의원 구성 등 조직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특히 작년말부터 이어진 탈당 사태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의원과 당원이 대규모로 당을 떠나 조직 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당헌·당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당 혁신

위원회가 만든 지도부 선출 방식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 관계자는 “혁신위는 최고위원을 앉히고 대표위원을 신설토록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이를 수정하는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5분부장 체제를 도입하면서 폐지한 사무총장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이처럼 전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달리 당대표 후보군의 움직임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송영길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당대표 도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나머지 후보군은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송당선인 외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부겸·김진표 당선인, 추미애·이인영·정청래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18 36주기·盧 전 대통령 7주기...野, 단합 과시하나

광주·봉하마을 집결

광주 민심 놓고 쟁탈전 관심

아권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모일(5월 23일)을 맞아 광주와 김해 봉하마을에 잇따라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된 아권이 이들 기념일을 계기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모처럼 단합을 과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8일 아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민주 지도부는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7주기 추모식 참석을 일찌감치 결정했다. 5·18 행사의 경우 전야제부터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20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의 경우 두 행사 모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참석을 기본 방침으로 정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아권의 정통성을 과시하는 동시에 당의 단합을 도모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당도 이들 행사에 참여할 경우 아권이 총선 승리 이후 처음으로 결집해 세를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아권 공조를 위한 양당 지도부 간 조율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두 야당이 총선 이후 아권 ‘심장부’인 광주 민심을 두고 벌이는 첫 쟁탈전으로서도 관심을 모은다.



안, 어린이와 눈높이 대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5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대축제에서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들 행사에 지도부가 참석한다는 큰 방침 외에 세부 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두 행사 모두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참석 대상 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5·18 행사 참석 전날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아직 최종

결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국민의당은 설명했다. 국민의당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두고 신당으로서 처음 맞는 이들 행사가 당의 지향과 노선을 보여주는 중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겠다는 지향점을 제시한 만큼 아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들 행사 참석을 두고 중도 및 보수 성향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같은 아권이지만 더민주를 겨냥, ‘낡은 진보’와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 청산을 외치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당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는 정치적 논란 거리가 돼선 안 된다. 많은 국민이 기념하고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들 행사 참석을 국민 통합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 한명당 월세 年 6억8천만원

평균 연봉 1억 3796만원

20대 국회에서 의원 1명이 한 해 동안 수령하는 연봉과 각종 경비 및 수당은 2억2천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좌진에게 지급하는 보수까지 합하면 의원 1인당 드는 비용은 연간 최소 6억7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8일 국회사무처가 펴낸 ‘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이날 30일 기준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 3796만1920원(월 평균 1149만6820원)이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월 646만4000원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정책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총 775만6800원)도 포함된다. 올 5월의 급여는 개원일인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돼 6월 급여

에 포함돼 지급된다.

이밖에 의정활동 경비로도 연간 9251만8690원(월 평균 770만9870원)이 지급된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000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 공무원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합하면 의원 앞으로만 한 해 2억3048만610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여기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실수령액은 더 커진다.

의원 보좌진 연봉은 ▲4급 상당 보좌관 7750만9960원 ▲5급 상당 비서관 6805만5840원 ▲6급 비서 4721만7440원 ▲7급 비서 4075만9960원 ▲9급 비서 3140만5800원 ▲인턴 1761만7000원 등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의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3위’

4·13 총선을 전후해 가파르게 올라가던 국민의당 지지율이 급락하며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3.1%p)에 따르면 5월 첫째주 국민의당 지지율은 18%로, 새누리당(32%), 더불어민주당(22%)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총선 직후

기록한 최고치(25%)에서 2주 연속 하락한 결과이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2.5%p)에서도 국민의당 지지도는 21.6%로 전주(24.9%)보다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특구내 빌딩 매매

지하 1층 ~ 지상 7층 (중심 상업지역)

대지: 661㎡ (200평) 건축: 495㎡ (150평)
연면적: 3,446㎡ (1042평)

최상의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시 최적
-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내 감면
- 다양한 보조금 지원 및 대목적임 세제감면 금융지원

010-8696-8949

미래나눔공인중개사

(주)다산부동산중개법인

부동산투자 컨설팅, 관리 상담, 상가 토지전문

아파트매도 - 북구 양산동 새한아파트

- ◆ 79㎡ 2층 남향 급매 8,950만원
- ◆ 운암동 건물 매매 : 제1종 중생 대지 165㎡
보증금 1억2천, 월세 290만원, 매매 7억2천

- 토지매도: 광산구 선운지구 5,400㎡ 매매가: 54억원, 자연녹지지역, 8차선도로점, 미관지구

- 광주시내지역 6억, 10억대 : 수익률 좋은 상가건물 매수

- 정음 소성면 요양시설 매매 : 4.6억 대지 800평, 건평 114평 시비권없음, 주변저수지 조망권 양호

채용공고

부동산 경매 배우면서 일할실분
NPL배우면서 일할실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주)다산부동산 Tel. 062)682-2288
365shopes@naver.com H.P 010-5180-1945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로로 50번길 55번지 KT 풍암빌딩 1층(풍암저수지맞은편)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Ym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0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 0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eU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